

제목	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의 규제 완화		
소관부서	식약처	개선시기	2016년 8월
<p>□ 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(CAD*, CDSS** 등) SW가 기존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높은 규제 등급을 적용받고 있어 기술개발이 되더라도 의료기기 인증에 따른 기간이 길어져 빠른 상용화에 어려움 * CAD : 컴퓨터자동진단지원시스템 ** CDSS :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			
<p>□ 개선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S/W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 재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영상 진단보조장치 소프트웨어 품목 재분류 또는 세분화 -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('16.8.11) *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[3]외에 의료영상검출보조소프트웨어[2] 품목 신설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'AI 스타트업'이 '알파고'의 학습 원리인 '딥러닝' 알고리즘으로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제품을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			

제 목	유헬스 게이트웨이 허가 심사 완화		
소관부서	식약처	개선시기	2016년 8월
<p>□ 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헬스 게이트웨이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제조 허가·심사를 받도록 규제 ○ 의료데이터의 단순 전달이 기능인 유헬스 게이트웨이가 의료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인증으로 인한 시간 및 금전 소요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 			
<p>□ 개선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품목 세분화 및 등급 하향 (건의된 의료데이터만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게이트웨이의 경우 1등급으로 완화) -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('16.8.11) *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[2]를 1등급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[1]와 2등급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[2]로 구분 			

제목	디지털 광고판 활성화		
소관부서	행자부	개선시기	2016년 7월
<p>□ 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기준에 따라 광고물 표시 ○ 택시 상단에 설치하는 디지털사이니지를 시범적으로 허용('18.6.30일 까지)하고 있으나 버스에는 허용되지 않음 			
<p>□ 개선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으로 교통수단(버스 등) 이용 광고물 시범사업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규제프리존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제도화 방안 검토 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('16.7.6) * 교통수단 외부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설치 근거 마련 			
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광고산업 재도약)DS는 국내 광고 시장의 파이를 확대하여 성장의 정체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 ○ (공공미디어 확산)생활,지리,재난/재해,오락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미디어로서 정보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유도 ○ (기존 산업 주도권 확대)DS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회영역으로 작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디스플레이 통계('14) : 생산 43.5조원, 수출 314억불, 세계시장점유율 44.2% (출처: e-나라지표) 			